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 역행하는 ‘관치시대’ 관행 여전”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 연동읍)은 16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의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또는 상위기관의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관치시대의 관



강철남 의원

이장 해임 요구 거부 지적 강철남 의원 “자치권 훼손”

행이 아직도 남아 있어 매우 어렵다”며 지방자치와 특별자치에 역행하는 행정 관행의 변화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최근 선출된 2리 마을주민들의 이장 해임에 대해 임명권자인 조천읍장이 거부한 사례를 들며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규칙에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

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임의 경우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해임된 사람을 해임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며 “즉, 해임 절차를 읍면동장이 규칙에 정한 사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소명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의 요구에 의해 해임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에 비해 타 시도의 경우 이장의 해임과 관련해 구체적인 주민의 요구에 의해 해임할 수 있어, 특별자치체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히려 마을의 자치권을 훼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임명시에는 마을운영규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해임에 대해서는 자문번호단의 법률 자문까지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마을규약이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은 소홀히 하면서 이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권한 행사에만 집중한 행정의 행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마을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향후 마을규약에 따라 해임된 자에 대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오은지기자 ejoh@halla.com



눈물 흘리는 도시디자인담당관 개방형으로 채용된 김성은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이 16일 제주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을 하던 중 눈물을 보이고 있다. 김 담당관은 건강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중고교 야구부·유도부 해체 논란 ‘도마’

교육위원회

엘리트 체육인 양성 후퇴 지적 학교시설 안전성 확보 주문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엘리트 체육인 양성 정책 후퇴, 학교 시설 안전성 확보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6일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송산·효돈·영천동)은 최근 불거진 제주고 야구부와 사대부중 유도부 해체 논란을 거론하며 “교



강충룡 의원



김희현 의원

육청의 엘리트 체육인 양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대부중 유도부가 해체된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에 확인해 보니 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그

런데도 교육청은 운동부 폐지가 전적으로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일단 유지 방침이 내려진 제주고 야구부에 대해서도 “조건적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독소조항을 달았다”며 “엘리트 체육인 양성에 대한 정책이 후퇴한다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청의 정책이 그저 이상으로만 존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초 제18호 대법 ‘미타’의 영향으로 제주시 구좌중앙초등학교 지붕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구좌중앙초 지붕처럼 내내 학교에 샌드위치 패널로 된 급식실, 기숙사 등이 87개 동인데, 이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도 420억원에 달한다”며 “샌드위치 패널은 돌풍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IB 교육프로그램 도입 과정 등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전 세계 150여 국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IBO와의 MOU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비밀 유지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기자 jieun@halla.com

원 도정 출범 이후 부결 3건뿐...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의례’ 전략”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행감서 질타 “난개발 논란 특단 조치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심의 등의 역할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성민 의원

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사진)은 16일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을 상대로 한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강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고 입지환경의 부적정 논란이 있더라도 몇 번의 재심의를 거쳐 결국 사업을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원회용 도정 출범 이듬해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39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71.5

%인 171건이 원안 또는 조건부 수용, 21.3%인 51건이 재심의 의결됐다. 하지만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부결 결정은 2016년, 2018년, 2019년 각 1건씩 단 3건(1.2%)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원 도정 출범 이후 부결된 3건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폐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건으로 실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결은 1건도 없다”며 “이는 곧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3%에 해당하는 재심의를 통해 사업규모나 층수의 조정 등 일부 공공성에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에 대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주의 발전, 환경보호와 쾌적한 도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심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상임기획단의 독립적 기능 강화,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체 회의록의 의무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관련해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원안승용이 많은 부분은 몇 번에 거쳐 중복해서 위원회를 거치고 오다보니 많은 것으로 한번에 원안승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지적된 문제에 대해 앞으로 관심 갖고 살펴볼 것임을 밝혔다. 오은지기자

“내국인 관광객 통계 신뢰성 떨어져”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이승아 의원 비판 “기초통계부터 주먹구구”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하고 있는 내국인관광객 통계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



이경용 위원장



이승아 의원

무감사에서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귀포시 서흥·대륜동)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이

이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월 관광객 수 산출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광통계방법 개선연구를 실시해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이 1308만명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개선연구를 통해 도출된 비율을 적용하면 1121만명으로 180여만명이 차이가 난다. 또 제주도가 올해 8월 기준 내국인 관광객이 1.2% 회복으로 발표했지만 2017년 적용치를 반영하면 오히려 0.2% 줄어든다. 이에 관광업계 현장에서 내국인 관광객이

회복세라는 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가장 기본적인 관광객 기초통계부터 주먹구구로 통계방법 개선을 위한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조사주기, 적용연도, 조사기관, 예산도 다 제각각”이라며 “일관성이 유지돼야 통계의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통계의 오류는 도 관광사업 전반에 의사결정의 오류, 경영위험도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통계의 생산, 활용, 인식, 인력, 예산확보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은지기자

잔치행수대! 잔치먹으래 음뽀
-제10회-
혼인지 축제

- 일시: 2019년 10월 19일 ~ 20일(2일)
- 장소: 은평리 일원(혼인지 일대 및 황루암)
- 혼례행렬 및 식전공연: 2019. 10. 19(토) 9:30~12:00 (황루암에서 혼인지까지 혼례행렬, 제주도립무용단 공연)
- 개막식: 2019. 10. 19(토) 12:00 (혼인지)

전통혼례 및 각종 공연
강연프로그램/체험프로그램
먹거리장터/전문문화체험

제1회 우도초등학교총동문· 제주우도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늘 가을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결실이 넘쳐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날씨 속에 우도초등학교총동문회와 제주우도면민회 조직이 합병이 되어 처음으로 치르는 '제1회 우도초등학교총동문·제주우도면민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래

- 행사명: 제1회 우도초등학교총동문· 제주우도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 일 시: 2019년 10월 19일(토)
- 장 소: 조천운동장
- 개최식: 오전 10시
- 연락처: ○ 사무국장: 윤부국 (010-6789-9557) ○ 총무부장: 윤원유 (010-3694-0183)

우도초등학교총동문회·제주우도면민회 회 장 고 범 환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
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가을맞이대축제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